

해가 천천히 하루를 접으면
고요가 골목마다 스며든다.
말하지 못한 생각들은
바람처럼 마음에 머문다.

사라지는 것들 속에서
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기다리고,
침묵 속에 남은 온기로
오늘을 조용히 견딘다.